

무형문화유산 영상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수용자 반응 연구

Research of User's Responce for Application in Image Achiev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김미숙*, 정성환**

전북대학교 디자인제조공학과*,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과**

Mee-Shuk Kim(boss466@hanmail.net)*, Sung-Whan Chung(sungwhan@chonbuk.ac.kr)**

요약

최근 전통문화의 패러다임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과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기록 보존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기초연구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고, 아카이브의 기록물 중 기록영상과 기록영화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입도, 교육효과, 흥미도, 이해도, 행동의지에 대한 수용자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기록영상에 대한 몰입도, 이해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반인 경우는 기록영화에 대한 몰입도와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수준에 맞는 기록영상, 기록영화 등을 따로 분리 하여 제작 보급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몰입과 흥미를 갖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위해서는 그 기.예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인 콘텐츠가 요구 된다.

■ 중심어 : | 무형문화유산 | 아카이브 | 다큐멘터리 | 영상디자인 | 수용자 반응 |

Abstract

The world focus on enhancing national prestige based on th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that make an effort to popularize in public. Hence, the true issue of paradigm for traditional culture are given at recreation for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To study level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in cultural heritage, proceed on experimental research for two groups that each group as for professionals and laymen. There are five experiment with two groups that of level of immersion, educational effect, interest, intelligibility score in the documentary in achieve which are recorded image and recorded film.

The result of experiments, it showed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s and laymen, high scored of immersion and intelligibility score in professionals group of recorded image, other highly scored of immersion and educational effect in laymen of recorded film.

Consequently, it will need historical recording documents to supply divisively with as considering levels and cognitive situation for professionals and laymen to satisfy their intention. And also, the needs for public to develop various source and contents of heritage to have people's interests. For the expert, it demand on educational projects and contents to be initiated in skills and arts.

■ keyword :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Achieve | Documentary | Image Design | User's Responce |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점차 우리의 것을 잃어가고 있는 현 세대에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제화와 국제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점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무형유산은 그 특성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서 전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맥을 이어가 있는 형태이며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전수자가 없이 그 맥이 끈기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질, 변형되기가 쉬었다. 이로 인해 원형 보존을 위한 기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형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무형유산에 대한 영상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전통문화 관련 영역에서는 앞으로 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갈 것으로 보인다[6].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도하여 무형유산을 기록하여 보존·관리·활용 하고자 기록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전 종목에 대한 영상제작(1995~2012)이 완료되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과 기록화 작업을 담은 영상물(DVD)을 제작하여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해야할 최소한의 기록범위와 기록물 제작의 기획에서 현장기록에 이르는 제작의 전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11].

그러나 영상기록에 대한 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주영[4]은 기록영화 제작은 보유자(단체)가 지닌 기·예능의 원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 전승하려는 데 그 목적이다. 정수진[7]은 제작된 기록영화는 실제 대상 문화형태의 유래와 역사, 기 예능의 의미와 가치, 보유자의 계보와 이력 및 전승실태를 해설에 의지하여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영

상자료가 원형보존의 목적 보다는 시청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의 목적에 더 충실하여 원형보존의 제작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승범[6]은 단순한 기록자체만을 보관하기 위한 것 뿐 만아니라 무형문화재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전승자 뿐 만 아니라 보다 많은 수용자를 위해서 전통은 단순히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닌 활용하고 문화를 확대 재생산해야 하는 문화의 원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실험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 평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여도와 태도, 무형문화유산 관심여부, 무형문화유산의 이미지,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대한 지식, 공연 관람 여부 등을 설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연구로는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먼저 아카이브의 기록화 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기록영상과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과 이야기, 영상표현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제작된 기록영화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파악하여, 영상제작에 있어서 생활문화화와 대중화를 위한 각 수용자에 맞는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영상아카이브의 기록물 활용에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어떠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며, 기초연구를 통해 차후 수용자에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기록물에 대한 사료적 가치로의 정보(Information)와 교육적 가치로서의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인식을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나누어 상징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가치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관여도와 태도를 살펴보았다.

실증 연구로는 기록영상과 기록영화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수용자 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상을 시청 후 설문과 인터뷰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대상물은 무형문화유산 중 중요무형문화재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 무예종목, 총126종목 가운데 수용자 반응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기.예능을 통합하고 있는 가야금산조와 병창을 선별하여 실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인식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정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네스코(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는 무형문화유산협약에 의거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라고 협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패러다임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사용되는 용어를 무형문화유산 이라는 용어로 재설정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1.1 무형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4. 6] [법률 제10562호, 2011. 4. 6, 일부개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문화재의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등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선정, 전승지원금을 확대하고 종목별 전승현황, 보유자의 제자 양성 실태, 전수교육의 원형보존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가지정 문화재 뿐 만 아니라 그 외 시·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다.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해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13].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을 신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1.2 무형 문화재의 현황

현재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2월 현재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114종목, 세부종목 농악(6), 풍어제(4), 향제출풍류(2), 농요(2), 향토술담그기(3) 포함하여 총 126종목이 지정되었다. 지정된 종목에는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일련번호는 중요도가 아니라 지정된 순서이며, 관리를 위한 번호로 이용된다. 일부 종목은 몇 개의 독립된 세부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부종목은 상위 종목 지정번호에 따른 가지번호를 별도 부여하여

가, 나, 다 등으로 구분한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총 446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가장 많은 전북(56)과 울산(4)지역이 가장 적게 지정되어 있어 각 지역이미지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1.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

중요 무형 문화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29	3	0	4	1	0	0	9	1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3	3	2	12	7	9	4	27	114
시도 지정 무형 문화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42	17	16	24	17	18	4	46	2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24	43	56	39	30	31	19	0	446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지정종목이 126종목 중 보유자는 178명, 전수교육조교는 300명, 이수자는 4,316명, 전수장학생은 71명으로 총 4,865명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전승하고 있다.

이 밖에 시·도 지정무형문화재에서 지정종목 446종목 중 보유자 501명, 조교 366명 등이 있다.

표 2. 분야별 전승자 현황 (자료 : 문화재청 2011. 12. 31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종목	지정번호	17	7	14	24	1	49	2	114
	세부종목	24	7	14	27	1	49	4	126
보유단체		14	4	13	26	-	-	1	58
전승자	보유자	39	11(1)	24	35	1	64	4	178(1)
	전수교육조교	89	21(1)	67	71	2	49	1	300(1)
	이수자	1,973	720	471	612	49	474	17	4,316
	전수장학생	14	-	1	-	-	56	-	71
계		2,115	752(2)	563	718	52	643	22	4,865(2)
명예보유자		2	1	6	7	-	9	1	26

보유자(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인정권자(문화재청장)가 국가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해 종목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보유자(보유단체)의 주된 의무는 '전통문화의 확산과 세대 간 전승'이다. 따라서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되면 자신의 기·예능을 전수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자질과 뜻이 있는 전수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며 이들 가운데 3년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아 일정한 기량에 이르면 이수자로 인정한다. 이수자 중에서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보유자의 추천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다[1]. 명예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류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하려는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1.1 아카이브의 개념

아카이브에 대한 어원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랍어인 아르케이온(Archéion)에서 유래되었으며, 보다 직접적인 의미가 전달된 것은 라틴어 아르키부름(Archivum)으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형태의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나 기관을 뜻한다.[5] 또한 사전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Oxford 영어사전에서는 공적인 자료(Public records)와 그 외 중요 역사적 문서(Historical documents) 그리고 보존된 역사적 기록(Historic records), 문서(Documents) [12]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는 오래된 자료를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8]. 이러한 어원적, 사전적 정의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시설 및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록물 보존이라는 아카이브의 기본적 역할은 기록물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확대된 역할개념으로 그 의미가 이어지게 된다. 즉, 기록물은 활용됨으로서 비로소 그 보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방성과 공공성의 확대에 기인하여 현대의 아카이브는 열람이라는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이외에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나 교육 등의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된 공공서비스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8]. 따라서 기록물 보관의 기본 목적 뿐 만 아니라 활용성으로서 전시, 열람, 교육의 기능까지 확대된 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아카이브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2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현황

영상기록 보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상은 문화재연구소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National Archives of Korea, Nara Repository)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는 기록판·축약판 마스터테이프와 미편집본, 촬영한 그대로의 러쉬 테이프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수장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기록원의 나라 기록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국립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록화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나로 일원화 되지 않아 해당 기록물을 검색하거나 열람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기록화 사업표준데이터제작지침”을 통해 기록물 일원관리 시스템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 목적은 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대한 표준제작절차 및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기록의 질을 높이고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기록을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사업의 중복을 피해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문화재기록화의 사업 통합화와 일원관리는 먼저 지방자치체의 기록화 사업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의 담당자가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의 문화재나 그 기록 상

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기록 기술은 단기간에 바뀌기 때문에 “표준데이터 지침” 역시 기술변화에 맞추어 갱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동시에 멀티미디어 등 기록 표준화가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지침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0]. 앞으로 개관되는 국립무형문화유산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건립하고 있다. 차후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실험 연구

1. 기초 설문

본 연구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무형문화유산의 관여도와 태도, 가치인식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실험에는 이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여도와 태도, 가치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관심여부, 무형문화유산의 이미지,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성,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대한 지식, 공연관람 여부 등을 설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무형문화유산의 관여도에 대하여서는 전문가는 관여도가 높은 반면 일반인은 관여도가 적게 도출되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여도와 태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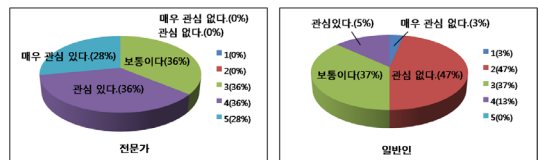


그림 1. 무형문화유산 관여도

무형문화유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전문가는 이론적 고찰에서 보여 주었던 가장 원론적인 보존·전승

되어야 한다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가치가 있다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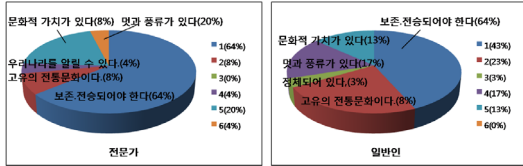


그림 2. 무형문화유산 이미지

일반인들은 보존·전승되어야 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고유의 전통문화이다, 멋과 풍류가 있다, 문화적 가치가 있다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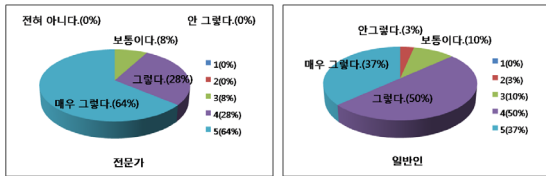


그림 3.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 대한 물음에는 전문가와 일반인 공통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콘텐츠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와 일반이 모두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보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아카이브가 일원화 되지 않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해당하는 기관에 각각 분산되어 관리하는 상태이고, 기록에 대한 수준의 정도의 편차가 크고, 이용하는 데도 일부는 공개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있어 대중화되지 못함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에 관한 조사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9]을 통하여 추출한 가치 인식의 척도를 상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역사적 가치로 각각 5문항씩 총30문항을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논문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5점 등간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3. 신뢰도 검증

	Cronbach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전문가	0.610	0.933	30
일반인	0.894	0.900	30

설문에 대한 신뢰도는 $\alpha=0.610, 0.894$ 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전문가 집단은 상징적, 교육적, 역사적 가치를 높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치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상징적, 역사적 가치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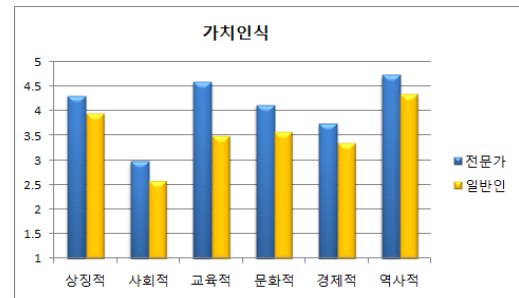


그림 4. 무형문화유산 가치인식

따라서 기초 설문 결과 전반적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여도와 태도, 가치인식에 있어서 전문가는 높은 인식에 비해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낮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보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에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 기록보존과 활용 면에서 매우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자부심,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록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실증 연구

실증 연구는 아카이브의 기록영상과 기록영화로서 다큐멘터리적 요소에 따른 국악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연구한 것으로서, 기록 영상물 해석에 있어서 수용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살펴보았다.

자극물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부종목을 포함하여 126개의 지정 종목 중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기.예능을 통합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을 선정하였다. 기록영상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인 강정렬 가야금 병창 공연(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을 녹화한 영상물을 10분으로 하였으며, 기록영화는 다큐멘터리 요소를 가진 기록영화(국립문화재연구소 제작)를 10분으로 재편집하여 영상 자극물을 추출하였다.

기록영화 자극물에서 다큐멘터리 구성요소에는 [표 4]와 같이 형식적인 요소인 영상과 음향 그리고 내용적 요소로 서사구조가 구성된 영상물로 실험하였다.

표 4. 자극물 기록영화 다큐멘터리 구성 요소

형식적 요소	
영상	음향
전문가인터뷰, 보유자인터뷰, 기록필름, 현장화면, 구성화면	내레이션, 음향효과, 음악, 현장을
내용적 요소	
지정 문화재의 유래와 역사, 보유자의 계보와 이력 및 전승실태를 해설자에 의해서 전달하는 형태	



그림 5. 기록영화 구성

실험대상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국악 전문인 40명과 국악과 관련이 없는 일반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시청 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수용자 반응 연구는 수용자 태도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처리과정 모델의 효시인 AIDA모형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태도의 구성요소를 보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단계(Cognitive Stage), 정서적 단계(Affective Stage), 행동적 단계(Cognitive Stage)의 세 단계[3]를 거치게 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반응을 평가하는 영상 정보 처리 단계를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행동적 반응으로 논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또한 수용자 반응의 평가항목은 선행연구[2]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추출하였다.

표 5. 설문의 구성 항목

구성요소	변인	설문 내용
인지적 반응	교육효과	· 교육적 가치가 있다. ·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
	이해도	· 그들의 삶을 알 수 있었다. · 예능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정서적 반응	몰입도	· 내용에 몰입하였다. · 주의력이 집중되었다. · 볼거리가 있었다
	흥미도	· 흥미로웠다. · 감동적이었다. · 재미있었다.
행동적 반응	행동의지	·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 · 무형유산을 배우고 싶다.

따라서 수용자 반응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수용자 반응에 사용된 변인들은 인지적 반응 요인으로 교육효과, 이해도를, 정서적 반응 요인으로 몰입도, 흥미도, 행동적 반응 요인으로 행동의지로 나누어 기록영상과 기록영화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인 5점 등간척도로 평가하였다.

기록방식에 대한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alpha=0.938, 0.928, 0.914, 0.892$ 로 신뢰성이 있으며,

표 6. 신뢰도 검증

구분		CronbachAlpha	Cronbach'sAlpha Basedon StandardizedItems	항목수
기록영상	전문가	0.938	0.937	15
	일반인	0.928	0.928	15
기록영화	전문가	0.914	0.917	15
	일반인	0.892	0.897	15

기록영상과 기록영화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에 대한 수용자 반응 결과, 교육효과, 이해도, 몰입도, 흥미도, 행동의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록영상과 기록

영화에 대한 효과는 5가지 수용자 반응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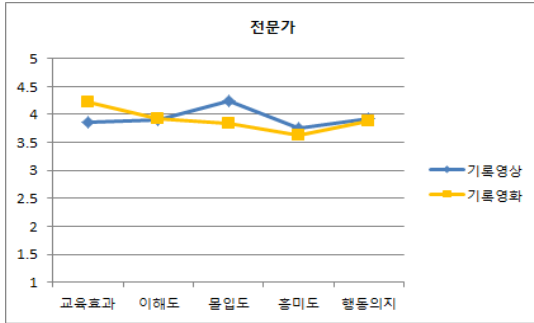


그림 6. 기록방식의 전문가 반응

영상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영상, 기록영화의 콘텐츠 유형과 전공유무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는 기록영상을 통해 몰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록영화를 통해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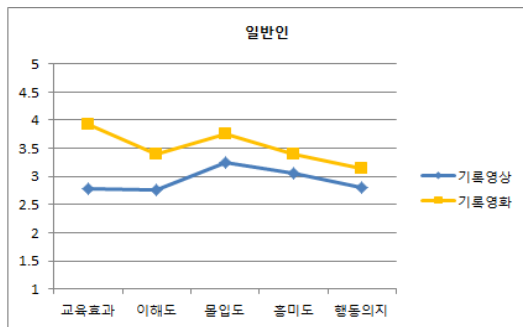


그림 7. 기록방식의 일반인 반응

일반인은 기록영화를 통해 몰입도, 교육효과, 흥미도, 이해도, 행동의지 등이 전반적으로 기록영상에 비해 높게 나타나 수용자 반응에서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 중 무형의

유산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결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여도와 태도가 전문가에서는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반인에게는 낮게 측정되는 보편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 결과는 관여도와 태도가 전문가와 일반인에 대한 기록영상과 기록영화의 수용자 반응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영상과 기록영화의 수용자 반응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관리 보관 되어 있는 아카이브의 기록물 중 단순 기록영상과 다큐멘터리 요소가 있는 기록영화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효과, 이해도, 몰입도, 흥미도, 행동의지에 대한 수용자 반응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기록영상에 대한 몰입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기록영화를 통해 교육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경우는 기록영화에서 기록영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는 기록영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축적이 되어 그 기능에 대한 사전 지식과 그 예능을 익히기까지의 과정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 몰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인은 기록영화에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요소가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 따라서 무형유산의 원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기록물에 대한 사료적 가치로서의 정보(Information)와 교육적 가치로서의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를 통합하는 개념의 콘텐츠가 요구되어 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를 위해서는 정보를 인식하고 그 기.예능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체계적인 교육적 콘텐츠 필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다큐멘터리적 요소에서 에듀테인먼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수준에 맞는 기록영상, 기록영화 등을 따로 분리 하여 제작 보급하여야 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아카이브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서는 아카이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용자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V.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전통문화에 대한 수용자 반응 실험을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반응의 척도를 유추하기 위한 기초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인 피실험자를 대학생으로 하는 한계를 두었다. 향후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실험을 통해 세부적인 실험을 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감성인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권소현,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2010.
- [2] 박신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자극에서 문자와 음악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166-208, 2010.
- [3] 안현정, *광고크리에이티브에 있어서 시각적 은유의 수용자 반응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3, 2007.
- [4] 위주영, *무형문화재 기록화와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0, 2006.
- [5] 이희재,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 p.233, 2004.
- [6] 임승범,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I 한·일 무형문화재 영상기록의 의미”, *한일무형문화유산연구 소교류보고서*, pp.176-187, 2011.
- [7] 정수진 “원형의 기록화, 기록의 원형화”, *한국민속학회*, 제173차 학술발표회, p.138, 2006.

- [8] 전홍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대응하는 아카이브의 공간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7, 2009.
- [9] 최지원,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무용부문의 가치인식을 통한 전승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5, 2008.
- [10] 효키 사토루,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I 한국 무형문화재 영상기록의 아카이브화 현황” *한일무형문화유산연구소교류보고서*, pp.159-273, 2011.
- [11]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12] J. A. H. Murray, *The Compact Edition of the English Dictionary*. Vol.1, Oxford University Press, p.10, 1984.
- [1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042#0000>
- [14] <http://www.archives.go.kr>

저 자 소 개

김 미 숙(Mee-Shuk Kim)

정회원



- 199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미술학석사)
- 2006년 2월 : 전북대학교 디자인제조공학과(박사수료)
- 2006년 8월 ~ 현재 : 전라북도립국악원

<관심분야> : 전통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영상디자인

정 성 환(Sung-Whan Chung)

정회원



- 1986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석사)
 - 1989년 5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과
- <관심분야> : 정보디자인